

경제

# 현대자동차 주간 2교대 근무 돌입

## 밤샘근무 45년만에 폐지...기아차 3월 4일부터 실시 생산량 유지 과제

현대자동차가 45년만에 밤샘 근무를 없애기 위한 주간 2교대 근무에 들어갔다.

오는 3월4일 전면 실시될 현대·기아자동차의 주간 2교대 근무를 앞두고 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 이날 오전 6시30분이 넘어서자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은 출근하는 근로자들로 분주했다. 2교대 근무로 출근 시간이 한 시간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날 울산공장(근로자 3만3000여명)과 아산공장(3000여명)에서 2교대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밤샘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주간 2교대는 1조 근로자가 오전 7시에 출근, 오후 3시40분(식사 40분)까지 일하고 2조는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식사 40분)까지 근무한다. 1조는 정규근로 8시간을, 야간조는 연장근로 1시간을 합쳐 9시간을 일하게 된다. 종전의 주·야간조 제도는 주간조 근로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정규근로 8시간+잔업 2시간), 야간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정규근로 8시간+잔업 2시간) 근무했으며 2주마다 근로자가 밤샘을 해야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3월 70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미 시범 운영을

가졌었다.

밤샘 근무가 사라지게 되자 근로자들은 '날 새지 않고 집에 갈 수 있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를 챙길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면서 생산량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부분.

실제 기아차가 지난해 주간 2교대제를 시범운영하자 하루 평균 2000여대의 생산량이 1700대에 그쳤었다. 기아차 노사는 생산량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시행 전까지 협의의 마다 근로자가 밤샘을 해야했다.

현대차와 더불어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인 기아차 광주공장이 주간 2교

대제를 본격 도입하면 협력업체는 물론 여타 제조업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협력업체 도입인 금속사용자단체는 모기업인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주간 2교대 도입에 맞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3월까지 주간 2교대를 순차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심야근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산업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근무환경을 정착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힘내세요! 중소기업인**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의 2013년 신년인사회가 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리마디플라자광주 호텔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왼쪽부터 강기정 국회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정순남 전남도 부지사, 장춘상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강운태 광주시장, 장병완 국회의원, 박혜자 국회의원이 건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중소 “불황형 자금난 가장 힘들다”

### 300개 업체 조사...“올 자금 수요 작년보다 늘어”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형 자금난이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업체의 37.7%가 지난해 자금사정에 대해 전년(2011년)보다 ‘곤란하다’고 응답한 반면 ‘원활하다’는 15.0%에 그쳤다.

‘곤란’ 응답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75.1%를 기록한 뒤 2009년 43.2%, 2010년 41.1%, 2011년 33.0%로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부진’(36.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제조원가 상승’(21.2%), ‘판매대금

회수 지연’(12.7%), ‘거래처 부도’(9.0%) 등 불황과 관련된 원인이 줄어 들었다.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7.0%였으며, ‘감소’는 16.0%였다.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보다도 10.3%포인트 줄어든 반면 감소는 8.0%포인트 늘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올해도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위축된 경영활동을 펼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조달할 자금의 주요 용도로는 ‘원부자재 구입’(34.7%)이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29.7%), ‘인건비 지급’(13.6%), 부채상환·기술개발(11.0%) 순이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은행 의존도가 높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자금 조달은 ‘은행자금’이 80.3%로 월등히 많았고 ‘정책자금’(14.6%)이나 ‘주식·회사채’(4.1%)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은행 대출조건은 ‘부동산·신용보증’이 58.1%였으며, ‘순수신용 대출’은 21.4%에 그쳤다.

은행 대출시 애로사항으로는 다수가 ‘높은 대출금리’(31.5%)를 들었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15.7%)와 ‘예·적금 가입요구’(11.0%)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8월 도입된 동산담보 대출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기아차-흥명보 공동마케팅** 기아자동차는 7일 기아차 서울 입구 정동 사옥에서 흥명보 전 올림픽축구 대표팀 감독과 공동마케팅 협약을 갖고, 축구를 매개로 마케팅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제공)

## 동부, 대우일렉 인수 오늘 본계약

### 인수가격 1000억 낮아진 2700억대 초반

동부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한 채권단과의 본계약을 8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채권단에 따르면 인수 가격은 2700억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6년 인도의 비디오킨소 사업, 2008년 모건스탠리 PE, 2009년 리플우드 컨소시엄, 2011년 이라계 엔텍합 그룹 등과 5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번번이 매각이 무산됐다.

대우일렉 최대 주주는 자본 57.4%를 보유한 자산관리공사(캠코)이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5.37%, 외환은행이 6.7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렉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워크아웃에 들어가고서 2002년 현재 사명을 갖게 됐다.

이후 2006년 인도의 비디오킨소 사업, 2008년 모건스탠리 PE, 2009년 리플우드 컨소시엄, 2011년 이라계 엔텍합 그룹 등과 5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번번이 매각이 무산됐다.

대우일렉 최대 주주는 자본 57.4%를 보유한 자산관리공사(캠코)이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5.37%, 외환은행이 6.7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작년 한국 수출 대상 72%는 신흥국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비중 계속 줄어

글로벌 경제파괴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 구조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수출 선박들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중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중남미로 행선지를 바꾸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이 작년 72.8%(3864억달러)

로 10년 전인 2002년의 53.2%(865억 달러)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커졌다. 이 기간 선진국 비중은 46.8%(760억달러)에서 27.2%(1442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

신흥국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은 2002년 238억달러에서 작년 1302억 달러로 늘었고 비중은 14.6%에서 24.5%로 커졌다. 같은 기간 아세안 수출 비중은 11.3%에서 14.4%로 늘었고 중남미는 5.5%에서 6.7%로 증

가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우방 관계를 유지하며 교역이 활발했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작년 미국 수출액은 56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에 불과해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미 수출 비중은 10년 전만 해도 20.2%에 달했지만 2003년 17.8%로 줄어들며 중국(18.1%)과 역전됐다.

재정위기로 큰 고통을 겪은 EU에 대해서는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추락했다.

/연합뉴스

## 첨단 ‘서히스타힐스’ 2차 조합원 모집

### 광주 첫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광주에서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립인가를 완료한 서희건설의 ‘서히스타힐스’가 2차 조합원을 모집한다.(조감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돼 짓는 아파트로, 조합이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빛고을로 연장노선 개통과 호남고속도로와 북광주IC 진출입도 편리해 교통여건도 원활하다.

첨단지구(북구 본촌동 670-11)에 세워질 서히스타힐스는 지난해 9월27일 설립인가를 완료했으며 지상 20층, 지하 1층으로 14동에 80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84㎡A 254세대, 84㎡B 41세대, 84㎡C 41세대, 84㎡D 175세대, 59㎡ 298세대로 구성되며 84㎡A 세대는 4-bay 설계로 이뤄졌다. 전 세대 남향 배치 및 넉넉한 동간 거리, 편리한 지하 주차장 도입으로